

지역 소식통

김제 교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월례회

김제시 교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7일 행정복지센터에서 1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 안건은 2017년 연간사업 계획 논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방법 지역지인 발굴 방안 협의체 신규 위원 추천 순으로 진행됐다. 올해에는 더욱 활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탄탄한 지역의 복지자원을 연계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현하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2016년의 활동사항을 기본으로 2017년 도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끌고 나갈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소외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 봉사자 할인가맹점 활성화 간담회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는 지난 24일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대표들과 김제시 소상공인협회와 함께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활성화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들의 인정을 위하여 김제시 자원봉사종합센터와 제휴 계약을 맺어 자원봉사자가 소지한 자원봉사증을 제시하면 업체에서 체결된 약정 할인가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날 진행된 간담회는 참석된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활성화 논의를 통해 자원봉사자와 할인가맹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는 적극적인 홍보를 약속하였다.

/김제=곽노태기자

정읍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찾아가는 시부모 교육'

정읍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의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시고 진행하는 '찾아가는 시부모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 해소에 나섰다.

'찾아가는 시부모 교육'은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 여성들이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빚는 경우가 많아 건강한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매월 1회 지역 경로당 방문으로 시부모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자리이다.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로 이루어진 다문화 이해 강사들이 직접 시부모 교육을 맡아 문화와 관습 등을 이야기 나누는 형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이해와 호감을 이끌어 내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 버스 터미널 시내버스 장시간 주·정차

사고 위험 높아 대책마련 시급

상가주민·택시 운전자들 부안군에 개선책 요구 진정서 제출

부안 시내버스들이 배차시간을 맞추느라 버스 터미널에 장시간 주·정차하면서 원활한 차량 통행은 물론 각종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시내 버스터미널 지역 상가 주민들과 택시 기사들에 따르면 시내버스들이 5분 정차 시간을 제대로 준수해야 하는데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이상 주·정차하고 있어 도심환경 미관 저해와 상가 및 터미널 이용객, 택시, 자가용 운전자들의 각종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일부 상가주민들과 택시 운전자들이 개선책에 대해 부안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히 시내버스들이 4차선 도로 중 1개 차선에서 장시간 주·정차되면서 교통체증 유발과 버스로 인한 도로 시야가 가로막혀 버스 승하차 승객들이 도로로 나서고 있으며 무단횡단하는 일까지 빈번해 항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주말을 맞아 부안을 방문한 관광객 김모씨는 터미널 사거리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방항으로 좌회전



해서 직진하는데 갑자기 주·정차된 시내버스 앞에서 보행자들이 뛰어나와 인사가교 날 뻔 했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말했다.

또 일부 시내버스 기사들도 버스가 장시간 주차되면서 몸이 불편한 장애인 과인들이 버스를 이용하려고 먼 곳까지 걸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안군 관계자는 "지난

24일 버스업체, 택시업체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 버스 주·정차 시간 20분 이상은 차고지 등에 있다 배차시간에 맞춰 해당 구간에 대기 후 출발하는 것과 택시업체들도 버스 주·정차 구간에 택시 주차 공간 확보 경우라도 10분 이상 대기하지 않는다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정읍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 '순항'

현재 86.4%의 분양률... 중·대형 잔여부지 지난달 초 추가 분양공고

정읍시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내장산리조트 관광지 조성사업이 순조롭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분양대상 면적 111만7천550㎡ 중 96만15천623㎡가 분양돼 현재 86.4%의 분양 성과를 보이며 계획대로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

골프장 부지와 여관, 펜션, 상가 부지 등 소형 부지가 높은 분양률을 보

이고 있는 가운데 대형 숙박시설이나 워터파크 등 중·대형의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지난달 초 추가 분양공고했다.

시는 추가 분양을 위해 오는 3월 2일 서울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시는 "특히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대일 내장산골프장도

차질 없이 진행중이다"며 "토공 및 배수처리 시설과 수목이식 작업 등 골프장 부지 전체 지반정리 작업 중으로 공정을 12%에 있다"고 밝혔다.

3월 경에는 클럽 하우스와 골프텔 건축 공사도 시작할 계획으로, 내년 3월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6월경부터 시범 라운딩을 거쳐 9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시설원에 경쟁력 강화 69억원 투입

정읍시가 올해 고품질 원예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69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전략 육성 특화 품목인 수박과 토마토, 방울토마토, 딸기, 감자 애호박의 작목별 조직 육성과 안정적인 고품질의 농산물 위해 28억원을 들여 시설 하우스 자동화 온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시설 하우스의 이용률을 높이고 겨울철 원예와 특화 작목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일환으로 16억원을 투입, 다점 보온 커튼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특화 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15억원을 지원하고 정읍의 대표 농특산물인 고추의 연차

피해 예방과 친환경 고추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에 10억원을 투입하며, 2억원을 들여 시설하우스 피복 교체사업을 지원한다.

시는 이밖에도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과 고추건조기사업, 과수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 등 원예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지원할 것으로 정읍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을 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3월 김제지평선아카데미 강연 '봄향기가득,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

시민과 함께하며 미래를 위해 배우고 나누는 보람으로 매주 운영중인 김제지평선아카데미가 3월에는 파릇파릇 움트는 새봄 내음과 꽃향기를 듬뿍 안고 희망의 꽃을 피우길 바라는 의미로 '봄향기가득, 나와 함께하는 시간들'이라는 주제로 싱그럽고 알찬 강연을 준비했다.

3월의 첫 강연인 2일(제502회)에는 조준희 YTN대표이사 사장을 초청하여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과 전망적인 기업문화를 설명하며 기업은행 제직 당시 '모든 국민과 거래하는 은행'으로 이미지 혁신을 일으켰던 경험을 토대로 '변화의 중심에 서라'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9일(제503회)에는 이호준 여행작가 겸 시인을 초청, "나를 치유하는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행에서 만난 사람, 장소, 느낌들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면 결국 내가 가지고 있던 현실 속 스트레스나 어려움이 사라지고, 여행을 통해 자신을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치유를 시작하게 된다는 내용으로 강연을 진행한다.

16일(제504회)에는 김연수 푸드테라피협회 대표를 초청하여 "바르게 먹는 음식이 보약이다"라는 주제로 음식에서 보약을 찾을 수 있는 방법, 맛있게 먹으면서 살도 빼고 젊게 사는 식사비결, 자녀교

육으로 고민하는 부모들에게 내 아이를 바꾸는 음식테라피, 힐링식단 등의 내용으로 강연을 한다.

특히 이날은 요촌동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평선아카데미 체험의 날'로 평생교육기관인 교육문화회관 노래교실의 식잔공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23일(제505회)에는 방준석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교수 초청 "100세 시대에 알고 먹으면 약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되는 약 이야기"라는 주제로 자신의 건강을 본인이 잘 지킬 수 있도록 올바른 약 복용법에 대한 강연을 마련했다.

3월의 마지막 강연인 30일(506회)에는 스타강사 김미경 더불어민주당 인사이드 대표를 초청하여 "나 데리고 사는 법"이라는 주제로 인생을 크게 보고 나를 경영하는 법, 나를 경영하면서 실패를 또 다른 성공으로 보고 항상 꿈을 꾸며 남에게 의존하지 말자는 내용으로 각자 스스로가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강연을 한다.

양운엽 인재양성과장은 매주 목요일 김제지평선아카데미와 함께 시민모두가 활력있고 즐거운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앞으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경찰서 '개학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총력

시내권 초등학교 순회 캠페인·스쿨존 집중 단속 등

김제경찰서(서장 황대규)는 '2017학년도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제경찰서는 먼저 개학날인 3월 2일 김제소재 중앙초등학교와 캠페인을 시작으로 시내권 초등학교 4개소에 대한 순회 캠페인을 개최하여 시민들의 어린이 사고 예방활동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시내권 초등학교 등·하교시간대에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 스쿨존내 법규준수 확립 및 각 학교 녹색어머니들과 함께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전개할 예정이다.

이어 각 학교와 협조하여 김제시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순회방문 "어린이

이 교통안전 순회 교육"을 전개하고 스쿨존내 노후시설 등 시설점검을 병행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임진옥 경비교통과장은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2017년 어린이 교통사고 0사고"를 목표로 연중 현장 홍보, 스쿨존 내 법규준수 확립 등 다각적인 교통사고 예방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개하고 있는 3대 교통반칙 행위인 음주운전, 난폭·보복운전, 압제운전(꼬리물기, 끼어들기)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단속도 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남원에서 만나는

#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시